



군청 광장에서 봄나들이해요

보성지역 유치원생들이 보성군청 광장을 찾아 뛰놀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2010년 청사 리모델링과 별관 증축 공사를 추진하면서 군청 광장을 녹지화해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순천 브랜드 강화 1조1000억 생산효과

'순천 정원박람회와 도시발전' 정책토론회

관광객 440만명 방문…1인당 10만원 지출

순천시가 지난해 개최한 '순천 정원 박람회'가 순천시의 도시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생태·정원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희대 지상현 교수는 전남대 산학협력단 주최로 2일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에서 열린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와 도시발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순천 정원박람회 개최와 도시마케팅 및 도시브랜드 효과'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원박람회는 국민들에게 '순천시=발전가능성이 높은 역동적인 도시'라는 긍

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했고, 순천시의 긍정적인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시이미지와 마케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00명(정원박람회 방문자 300명+비참가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순천시의 도시브랜드는 '발전잠재력이 큰 역동적인 도시'로 나타났다.

순천의 도시정체성은 '생태+정원

도시', '자연 생태도시'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순천의 생태성과 친환경성이 높은 점수를 주며, '생태·정원도시'라는 순천의 고유한 브랜드를 강화하는 효과를 제공한 성공적인 박람회로 평가했다.

또 전문가들은 순천만 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76%가 동의하며, 정부가 국가정원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이성우 교수는 '순천정원 박람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와 도시발전 효과'라는 제목의 주제논문에서 "440만3890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1인당 10만4565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유사한 타 박람회(4000여 원 미만)와 비교해 1조1060억원

이라는 높은 생산유발 효과를 도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순천시가 2015년 개최하려 하는 '순천만 국제 정원축제'의 순연 재가치(NPV)가 2033억원으로 추정돼 비용·편익비율은 일반적인 경제성 판단기준(비용/편익=1)을 월등히 뛰어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전남대 이정록(지리학과) 교수는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는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경제적 효과, 순천시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 등의 개척성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이를 전국의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산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윤성기자 kim0686@

전북

전주시, 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

전국 최초…7월2일까지

선정지, 30억 인센티브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교도소 이전을 위해 후보지를 공모한다.

전주시는 3일부터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후보지(19만8000여㎡)를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공모는 교도소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7월 2일까지 세달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수년간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해 지체된 교도소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공모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 2~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법무부와 이전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각종 행정절차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 2017년 착공해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교도소를 이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30억원을 들여 마을 진입로 개설, 삼·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 등을 간접 지원한다. 법무부도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1만㎡ 규모로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전주시가 2011년 전주시 상립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시가 이 같은 공모방식을 선택한 것은 교도소가 쓰레기 매립장처럼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돼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할 경우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2000년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전주시가 공모 방식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 매립장을 삼천동 일대로 안착시킨 전례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지 조건은 법원·검찰청과 가까운 지역, 야산이 어우러진 지역 등이어야 한다. 신청은 전주시나 구청,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고창농악 한달간 읍·면 순회공연
보존회, 오늘부터 다섯차례
'찾아가고 찾아오는 풍물 굿'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고창농악 보존회(회장 이명훈)'는 3일부터 5월 1일까지 5회에 걸쳐 관내 14개 읍·면을 돌면서 풍물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찾아가고 찾아오는 풍물 굿'을 주제로 전교육관 활성화 사업 가운데 공연분야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서 보존회원과 이수자들은 보여주기식 공연이 아닌 14개 읍·면 농악단원과 군민이 함께 만들

어가는 화합의 장으로 고창농악 '판굿'과 고깔 소고춤, 단체 설장구 등을 선보인다.

첫 공연은 3일 밤 8시 해리면 신(新)보지회관에서 해리면, 상하면, 심원면 농악단과 함께 진행된다.

이후 공연은 ▲홍덕면 고창북고체육관(10일) ▲고공음체육관(24일) ▲고창읍성 주변 전통문화체험거리(5월 1일)에서 열린다.

고창농악보존회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해당 면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신명나는 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을창영기자 cy0370@

남원에 호남 최초 임산물 교육센터 개소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전문 입업인의 재배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임산물 교육센터가 남원에 문을 열었다. 강원도 평창과 경북 영주에 이은 호남지역 최초의 개원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최근 남원시 운봉읍 대덕리조트에서 호남권 임산물 교육센터 개원식 및 학동 입학식을 가졌다.

교육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까지 산양삼 재배와 산약초 재배 교육을 실시한다.

재배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체계적인 이론 수업과 함께 현지 재배지에 적합한 현장 실습, 유경험자 노하우 전수 등 전문적이 고 다양하게 진행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동학 120주년 기념 나무심기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정읍시 관계자들이 최근 정읍시 덕천면 기념관내 '상생의 공원'에 나무를 심고 있다. 재단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120그루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보성 최강 축구팀은

선흥클럽

축구협회장기 우승

최근 벌교 생태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19회 보성 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서 선흥클럽이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보성을 립이, 3위는 제암, 벌교클럽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보성군 축구협회(회장 김홍민)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읍·면 클럽팀 등 8개팀 4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개회식에는 정종해 군수를 비롯해 임명규 도의회 부의장, 이정민 도의원, 김관선 군의회 부의장, 박홍관 군의원, 이동현 보성군 생활체육 회장, 김수송 전 도의원, 황선오 벌교읍장, 김행수 벌교농협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정종해 군수는 "보성지역에는 보성·벌교·복내 축구장을 비롯해 회천 야구장, 대목적 트레이닝장 등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벌교 스포츠 센터가 완공되면 체육 기반시설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벌교 생태공원 축구장에서는 2014년도 광주·전남·충·중등부 주민리그와 전국 대학 U리그 축구대회가 매주 열리고 있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고흥군 신재생에너지 확대 '박차'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

고흥군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는 군 소유 유휴지를 활용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육성, 군 전기 사용량 50% 이상 자립과 군 세수 5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는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한전 KPS(주), DS제강(주) 등 투자사들과 타당성 조사

를 위한 업무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사업방식은 투자가 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및 사업비 조달을 담당하고, 군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발전소 조성 후에는 군유지 대부분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군에 발전소 시설을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는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보건의료원 '새건물 새출발'

곡성군 보건의료원이 최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업무를 시작했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읍 읍내리에서 곡성군 보건의료원 신축건물 준공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곡성을 학령리에서 기차마을 전통시장 인근에 옮내리로 보건의료원을 이전해 신축시키고 2012년 11월 착공에 들어갔다.

군은 앞으로 응급실, 입원실을 갖춘 병동을 증축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단신

남원서 매주 목요일 국악공연 펼쳐진다

국립 민속국악원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획공연인 '완월정 풍류이야기'와 '춘향고을 국악이야기'를 3일부터 매주 목요일 광한루원 완월정과 국립 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완월정 풍류이야기'는 만남·사랑·그리움·해후의 4가지 주제를 통

해 다양한 장르의 국악공연이 펼쳐지며 되며 10월까지(7·8월 제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남원 광한루원 내 완월정 정자에서 24회의 공연을 한다. '춘향고을 국악이야기'는 4~5월, 9~10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군산 새만금 마라톤대회 13일 개막

2014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대회가 13일 오전 8시 군산 월명 종합 경기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초청·등록선수들이 참가하는 엘리트 부문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마스터스 부문이 함께 시행된다.

마스터스 부문은 풀코스, 10km, 5km 등 세 가지 코스로 나뉜다.

2시간 7분 43초의 기록을 가진 비루 게메즈 우쿠(36·이디오피아)를 비롯해 7개국의 세계적인 선수들과 건강 1만500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장에선 사랑의 쌀 기부 달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행사장에선 사랑의 쌀 기부 달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행사장에선 사랑의 쌀 기부 달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행사장에선 사랑의 쌀 기부 달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행사장에선 사랑의 쌀 기부 달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